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중앙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성근

헌금 바로하기

바른 헌금생활하는 깨끗한 성도, 깨끗한 교회

모든 헌금은 교회를 통해 쓰여지도록
꼭 필요한 곳에 하고 싶으면 지명헌금으로

최 근 우리 교회는 사적으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할당치 않음을 강하게 인식하면서,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교인과 교역자들은 이 결정에 마음을 모아 힘껏 실

을 지원하는 일들로 인해 교회적인 혼란이 있었고, 또한 중직자들 중에도 자신의 십일조 헌금을 개인적 결정에 따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일들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헌금의 사용은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순수한 동

나 기관, 부서의 이름을 적어서 드리는 헌금)의 형식을 빌어서 교회에 헌금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 지명된 개인이나 기관, 부서에 전달될 것이다.

온 교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서 헌금으로 인해 순수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모든 헌금이 투명하게 드러져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더욱 힘써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10월 15일
교회 주변 대청소

10월 15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날이다. 현재 청소 참여할 예상 인원은 약 400여 명으로, 이들은 각 교구별로 추천되어 모이게 된다. 이에 추천되는 성도들 및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교회 앞마당뿐 아니라 교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계속되는 교회일꾼 영성 훈련
구역장 영성훈련

10월 1일 오후 1시 본당에서

10월 1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는 구역장 영성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지난 8월 17일과 9월 23일에 각각 실시된 남녀전도회 임원 및 찬양대부대장 교회학교 각 부 부장 영성훈련에 뒤따르는 것이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 움직이는 수많은 기관과 조직들 중, 전 교인들을 포괄하여 섬기고 돌아보는 조직은 구역모임이 유일하다. 따라서 '구역모임이 살면 교회가 산다'는 말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명제처럼 이야기되어 왔다. 한 구역은 평균 10개의 세대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우리 교회의 구역은 총 835개에 달하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장과 부지역장, 그리고 협력 구역장은 각각 141명, 488명, 525명이다. 그리고 구역의 실제적인 손과 발로 섬기고 있는 구역장들은 총 830명이다. 대략 8,300여 세대의 가정들을 830명의 구역장들이 섬기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구역장들이 얼마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주를 위해 힘있게 헌신하느냐가 전교회의 영적 분위기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구역장들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 담임목사와 더불어 영성훈련을 가지게 되는 기회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영성훈련을 통해서 각 구역들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활성화될 뿐 아니라, 구역원들이 동질집단끼리만 모이는 것을 탈피하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자들, 힘에 겨운 짐으로 눈

물몰리는 자들을 격려하여 함께 세워가는 일들이 나타나야 하겠다.

찬양대부대장, 교회학교부감
영성훈련 은혜중 마쳐

육적 부요함에 굴복않는 성도

지난 9월 23일(화) 저녁 7시,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는 찬양대 부대장, 교회학교 부감들을 대상으로한 영성훈련이 진행되었다. 부대장 13명과 부감 42명 등 총 55명이 참석하여 김성관 목사의 시편 73편 강해로 진행된 이 영성훈련에서는 '육신적 부요함에 굴복하지 말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 영적으로 버려진 자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할 것'과 '이를 위해 예수께서 피뎀한 자리, 저주받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 깊이 있게 강조되었다. 또한 김 목사는 강의가 끝난 후, 우리 교회 찬양대의 영성을 치하하면서, 모든 일꾼들이 명백히 불만스러울 만한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자고 호소했다.

이 영성훈련은 앞으로 안수집사회(10월 14일)와 실업인전도회(10월 21일)를 대상으로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훈련의 계기를 통하여 중헌의 각 기관과 일꾼들이 사람과 환경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기관과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동참해야 하겠다.



천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에 걸쳐 이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전교회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실천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비교적 최근까지, 헌금이 교역자나 선교사 개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헌금을 하는 자나 받는 자의 영적인 명분이 불투명해지는 일들이 수차례 있었다. 특히 유학 및 개척 후원헌금의 명목으로 교역자 개인들에게 적지 않은 돈

기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적으로나 교회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 그릇된 관행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는 모든 종류의 헌금은 교회에,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정당한 필요에 의해서 특정한 개인이나 타교회, 기관, 선교사들에게 헌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명헌금(헌금 봉투에 전달하기 원하는 사람이

10월 5일(주일)부터

5부예배에 고등부 동참

고등부 집회 시간 오전 8시 50분에서 오후 1시 30분으로

고등부가 10월 첫주일부터 5부예배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는 젊은 일꾼들을 통하여 '전교 중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등부때부터 동질의 비전과 그에 따른 말씀과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부 집회 시간이 종전의 주일 오전 8시 50분에서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시간 변경에 의해,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50분까지는 고등부 자체 집회 시간으로써 아국병 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말씀, 기도와

전교의 시간을 가지게 되며, 3시부터 4시까지 5부예배에 참석하여 대학 청년부 선배들과의 교류와 김성관 담임목사의 설교를 통해 비전을 나눈다. 5부예배가 끝난 후에는 학년별, 반별로 흩어져 분반공부를 하게 된다.

고등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교사나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장기적으로 고등부에 전하고 바른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세상 왕의 계획

(이사야 7:1-9)

본 문은 개인은 물론이고 한 나라 임금의 계획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 원수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1) 제1차로 연합군을 편성하여 침략해 왔습니다(1절)

아하스가 유다의 왕위에 있을 때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 아람의 르신 왕을 찾아가서 연합군을 편성하여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지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철수한 후에 유다의 아하스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은 살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땅히 경성하여 다음에 닥쳐올지도 모를 외침에 대비했어야 했건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저희가 잘해서 원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하여 마음놓고 먹고 마시며 죄를 범하였습니다.

(2) 제2차로 동맹군으로 침략하였습니까(2절)

얼마 후 아람과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고 결사적인 동맹을 맺고 재침략을 해왔습니다. 유다는 지난 번에 원수 연합군이 쳐들어 왔다가 도망쳤으니 그들이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들의 책임도 동한히 하며 부어라 마셔라 하며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동맹군이 쳐들어 오자 그만 아하스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원수들이 침략해 올 때에 '이젠 죽었구나!' 하면서 떨게 됩니다.

2. 한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이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한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때는 준비하지 않고 범피만 하던 뜻난 것들을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야, 너는 내 어린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 보아라" 하신 것이었습니다(3절). 이사야 아들의 이름 '스알야습'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죽다가 남은 백성은 돌아오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어린 아들인 스알야습의 손목을 잡고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어린 스알야습 혼자서는 왕을 만나러 갈 자격이 없습니다. 어린 아들의 이름이 아무리 좋아

도 '너 혼자 임금님 앞에 가서 말하고 오너라' 한다고 해도 임금님을 면회하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따라 나가니까 임금님 앞에 가도 떨리지가 않습니다. 어린애라도 은혜를 받은 아버지의 손목에 붙들리면 임금님 앞에도 겁없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면 어디인들 못 가겠으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이사야는 공포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세 가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 삼가며 조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4절)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개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안타까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에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조심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피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고, 원수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는 자는 사람 앞에는 입을 봉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입을 열어 의논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2) 원수에 대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① 원수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고 하십니다(4절).

아궁이에 나무를 때는데 부지깽이를 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부지깽이가 다른 나무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부지깽이 자체에도 불이 붙어 그루터기처럼 쭈아져서 못쓰게 되어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즉 원수들의 멸망이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② 원수들의 악한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5, 6절).

원수들이 유다 왕 아하스를 죽여 버리고 자신들과 대통하던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는 악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세밀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의 음모를 알려 주면서 대통하는 자 다브엘을 처치하라는 암시였습니다.

③ 원수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7절).

제1차 작전에 실패한 북방의 두 나라는 유다 왕 아하스를 제거하고 대통하는 다브엘의 아들로 왕을 세우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할 자인 메시아를 보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북방의 두 동맹국이 대통자 다브엘의 아들로 왕을 세우려고 아하스 왕을 비롯하여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죽여 버리면 하나님의 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복을 내리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데 어째서 망해야 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획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없애려는 악마의 교만한 장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왕과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악한 인간들의 세력에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④ 북방의 두 동맹국이 조속히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8, 9절).

두 나라가 동맹하여 굉장한 세력으로 쳐들어 와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까지 깨뜨리려고 하지만 겁내지 말 것은 그들의 작전대로 유다를 점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네 나라도 지탱하지 못하고 65년이 되기 전에 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남방 유다를 삼키겠다고 달려드는 북방 이스라엘을 무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 격려와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고 격려 하셨습니다(4절)

(2)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경계하셨습니다(9절)

원수가 강하다고 하여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 이웃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여 천하를 다 손아귀에 넣습니다. 이때에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내부가 썩지 않고는 강대국에게 망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강한 원수들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 온다고 해서 떠들지 말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권면은 공언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므로 그가 보호하여 주시면 누가 우리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어 약속하신 복을 꼭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어 죄를 보

시면 매를 꼭 드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3)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첫째로, 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원수를 겁내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둘째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책임에 충성해야 합니다. 셋째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넷째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고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복을 내리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데 어째서 망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크게 세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어려운 문제가 개인, 가정, 교회에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하며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때는 오히려 입을 봉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조심하여 조용히 기도하는 자만이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둘째로, 과거에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아주 망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망한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범죄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기회에 회개하고 살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원수의 계획도 무너지고 믿지 않는 사람의 계획도 무너지나 하나님의 계획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너도 나도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

●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

THE VALLEY OF BERACAH

(2 CHRONICLES 20:14-26)

Beracah means blessing. The Valley of Beracah is a special place that is mentioned in Scripture to portray God's response towards true faith. Today's message focuses on the actual events which led to King Jehoshaphat's personal and final victory over Judah's enemies in the Valley of Beracah. It concentrates on the importance of humbly relying, believing, praising, thanking, and worshiping God. It reveals the absolute necessity of these actions in receiving God's blessings. It also shows us how through these actions in receiving God's blessings. It also shows us how through these actions we can give and become blessings to God.

The biblical story begins with three countries intent on attacking and killing Jehoshaphat, "Now it came about after this that the sons of Moab and the sons of Ammon, together with some of the Reunites, came to make war against Jehoshaphat" (vs. 1). Obviously, Jehoshaphat did something terribly wrong to bring about such wrath. The truth is that he made a disastrous military alliance with King Ahab (2 Chron. 18:2-3; 19:2). His sinful military cooperation with Ahab was a defiant act against God that caused these countries to make war against him.

When he heard the report that this 'great multitude' came against him, "Jehoshaphat was afraid and turned his attention to seek the Lord, and proclaimed a fast throughout all Judah" (vs.3). Jehoshaphat realized his terrible predicament. He knew that he was in serious trouble and could not win against so large an enemy. He had no chance for survival on his own. His response to the horrible circumstances that surrounded him was to turn his full attention to the Lord and declare a fast for all his people. So even though Jehoshaphat committed sin, he was still a good king because of his overriding faith in God.

He also earnestly prayed to the Lord in front of all Judah (vs.5-12). Here we see Jehoshaphat's true heart and faith in action! What's interesting to note is that, "All Judah was standing before the Lord, with their infants,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vs.13). All the people knew that they were going to die if God didn't provide His help. Everyone relied on God and believed in God for their salvation!

"Then in the midst of the assembly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Jahaziel the son of Zechariah, the son of Benaiah, the son of Jeiel, the son of Mattaniah, the Levite of the sons of Asaph" (vs.14). God responded to Jehoshaphat's prayer by sending His spirit to speak through the priest Jahaziel. Through Jahaziel, God instructed all of Judah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not to be alarmed over the great multitude of warriors that sought to destroy them because the battle was not theirs but God's (vs.15). God told them where to go and there the enemy would be. Most especially He said, "You need not fight in this battle; station yourselves, stand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on your behalf, O Judah and Jerusalem. Do not fear or be dismayed; tomorrow go out to face them, for the Lord is with you" (vs.17). Just imagine yourself face to face with an enemy loaded down with weapons; while you have none and are instructed to just stand there unarmed. Just imagine the faith it requires to win a great battle without having to actually fight!

After hearing this incredible news, "Jehoshaphat bowed his head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all Judah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fell down before the Lord, worshiping the Lord" (vs.18). The levites stood up first and in a very loud voice praised the Lord (vs.19). This part of the story shows the utter significance of a leader, people and priests all coming together and uniting in the Lord! It reveals the inner and outer workings of true faith. It displays the measure and value of what's really inside one's heart.

Early the very next morning, Jehoshaphat consulted Judah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o put their total trust in the Lord so that they would



●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

브라가 골짜기

(역대하 20:14-26)

브라가는 축복을 뜻합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에 응답하신 것을 기념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유다의 적들에 대하여 개인적이고도 그의 마지막 승리를 거두었던 실제적인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곧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세 나라가 동맹하여 여호사밧을 죽이고자 하였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1절).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하였기에 이토록 세 나라가 동맹하여 그를 치려고 하였을까요? 이는 그가 아합 왕과 군사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대하 18:2-3; 19:2). 아합과 군사동맹을 맺었던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였고 이로 인하여 나라들이 일어나 그를 치게끔 된 것입니다.

큰 무리가 그를 치러 왔다는 말을 듣자,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뉘엿뉘엿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였습니다(3절). 여호사밧은 극심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는 그토록 많은 적들에게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전심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졌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유다 백성들 앞에서 주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5-12절).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행위로 나타난 그의 참된 마음과 믿음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13절)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신다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각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맛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 이더라"(14절).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신을 보내셔서 제사장 야하시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야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전쟁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병사들을 인하여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15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며 그들의 적들이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17절)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한 적군들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적군들 앞에서 서 있으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후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18절)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19절). 이것은 지도자, 백성, 그리고 제사장들이 주 안에서 함께 합심하였던 모습을 보여 준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나타나는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날 일찍이,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권고히 서서 행통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20절). 그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

be established and successful (vs.20). He appointed certain men to sing to the Lord and to praise Him for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as they went out at the head of the army, saying: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vs.21) What is happening here? We need to pause for a moment and slowly take in the aforementioned events. If we swiftly read through these passages, we miss an all important biblical concept.

Once again, imagine yourself in a dire situation and your pastor comes to you and speaks God's assurance and then asks you to sing, praise, and thank the Lord. It's not as easy as we think. Worshiping the Lord requires giving yourself completely to the Lord. It basically requires faith. Only by faith could Jehoshaphat and all Judah sing and praise the Lord during their life threatening strife. Only by faith can we sing, praise, and thank the Lord during the difficult times of our lives.

Jehoshaphat and his people demonstrated their complete confidence and trust in God by dropping their fears of the enemy and raising their fears toward God. Even though human eyes could see only death and destruction ahead; faith in God led Jehoshaphat and his people to see hope and salvation. Their faith manifested itself in worship to God.

As they began singing and praising God on their journey to to meet toe enemy, God miraculously destroyed the enemy (vss.22-23). When they reached their specific destination on top of a mountain, they were astounded to look down and see that the 'great multitude' were all dead on the ground below (vs.24). This was a blessing from God in response to their faith!

There was so much plunder from their enemy that it took three full days to collect it (vs.25). "Then on the fourth day they assembled in the valley of Beracah, for there they blessed the Lord. Therefore they have named that place 'The Valley of Beracah' until today" (vs.26). Through humble prayer, faith and action Jehoshaphat and his people not only received blessings from God but were able to give blessings back to God.

Jehoshaphat, all Judah,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sought the Lord for direction and guidance and received His blessing because of their trust, obedience, and reverence in God. In being able to receive God's blessings they became a blessing and were able to give blessings to God. In the New Testament, we are specifically instructed to seek the Lord God through Jesus. Christ says,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John 14:1). Why not just believe in God? Jesus tells us,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ohn 14:6). Jesus is in the Father just as the Father is in Jesus (John 14:11).

Unlike Jehoshaphat, we cannot pray to the Lord God without Jesus. God's mercy in the Old Testament allowed for repentance and redemption through burnt offerings; God's grace and mercy as displayed in the New Testament is only through His Son (John 3:16).

The works of Jesus as recorded in the Bible were many, miraculous, and magnificent but did you know that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he who believes in Me, the works that I do, he will do also; and greater works than these he will do; because I go to the Father" (John 14:12)? Christians are given a tremendous blessing in Christ! We receive the Spirit of the Lor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his blessing enables us to do greater works than Jesus performed. Remember that some of Jesus' words included healing all kinds of sicknesses, casting out demons, and raising the dead. So indeed our power in the Holy Spirit is pretty awesome!

Jesus also promises us,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will I do, s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John 14:13-14). Just as Jehoshaphat turned to God and requested and receive His help, so too are we able to request and receive God's guidance and direction through Jesus.

The valley of Beracah was a great blessing for all Judah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Jesus is the greatest blessing for all people who seek and believe in Him! There's no greater name, no greater power, no greater entity for human beings to call upon than Jesus. His is the only Lord, Savior and Redeemer for mankind. Just as the valley of Beracah was a reminder of God's blessing for Jehoshaphat, all of Judah,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so much more is the cross that Jesus died once and for all sin to bless mankind eternally!

Today's message clearly reveals that relying, believing, praising, thanking, and worshiping God through Jesus Christ and the inner workings of the Holy Spirit are necessary actions required to receive and give blessings. It is my prayer that all members of the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rely solely on God, really believe, and humbly worship Him. Our actions should not be limited to worship services but reflected in our daily living; so that God can transfer the Valley of Beracah to us. We need His blessings in order to prosper and live in His grace. Remembering always to give all praise and thanks and glory to Him for our personal and final victory found only in Jesus Christ!

습니다(21절).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보다 더 세심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쉽게 지나쳐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적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매우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찾아 오셔서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그리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여러분은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바쳐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모든 유다 백성들은 믿음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렇게 주를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직 주를 믿을 때에만 비록 삶의 어려운 때에라도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그들이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오직 그들 앞에 놓인 죽음과 멸망만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적들을 기적적으로 진멸하셨습니다(22-23절). 그들이 들 땅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그들의 적은 모두 죽어 땅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축복으로 갚아 주셨던 것입니다.

적군들이 남긴 물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적군의 물건을 취하기에 만 사흘이나 걸렸습니다(25절). "제 사일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26절). 겸손한 기도, 믿음, 그리고 행위를 통하여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뿐더러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모든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기에 그들은 받은 복을 또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안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요 14:11)고 하셨습니다.

여호사밧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번제를 통하여 회개와 대속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직 그의 아들을 통하여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요 3:16).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들은 많고, 기적적이며 놀랍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 14:12)고 말씀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욱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들 중 어떤 것들은 모든 질병들을 고치는 것,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포함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3-14)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향하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던 것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하심을 기도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를 찾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더욱 놀라운 이름, 더욱 놀라운 능력, 더욱 놀라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인류를 위한 유일한 주와 구속자와 대속자가 되십니다. 브라가 골짜기가 여호사밧, 모든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하는 것이 되었듯이 인류를 영원토록 축복하기 위하여 단번에 완전하게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축복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과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가 복을 받고 축복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필요한 우리의 행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겸손히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행위는 예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브라가 골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며 변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할 개인적인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 어려운 이웃과 함께 ❀

- 샘물호스피스를 다녀와서 -
샘물과 같은 사랑이 여기에김 순 화
(집사, 6교구)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질병과 싸우는 세상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한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 샘물과 같이 흐르는 곳이 있어서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몇 자 적는다.

언제부터가 세상 일과 신앙에서 방황하며 늘 불안하여 평안이 없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쏟아지는 회개의 눈물이 앞을 가린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런 기도 중에 2년여 동안 받아보고 있는 <호스피스 선교지>에 실린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이 광고되어 참가 신청을 했다. 호스피스는 의료 행위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전인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으로 돌보며 평화스런 마음으로 내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죽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말한다.

12주의 이론 교육이 시작되었다. 시간마다 은혜가 넘쳤고,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섬기는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점점 봉사자로서 사명 의식이 굳어져 갔다. 12주의 교육 후 환우가 입원해 있는 현장 봉사가 시작되었다.

용인에서 조금 더 들어간 백암이란 곳에 위치한 공기 좋고 주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환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배려되어 있는 시설들이 인상적이었다. 상근 봉사 간호사님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가 보니 조용하게 찬송이 흐르고 있었다. 밤새 환우와 고통을 나눈 봉사자들이 맞아 주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섬기며 돕는 마음으로 했지만 이들을 대할 때마다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주신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다. 환자들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쇠하여 있고, 고통으로 시름하며 힘겨워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마감하고 있다.

하나님은 죽음의 현장에서 무엇을 보여 주시려는 걸까? 나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건강할 때 신앙 생활 잘했던 환우들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이 영적 상실감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지지해 주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샘물 호스피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사랑을 직접 세상에 소리없이 전하는 천국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한 목사님의 오랜 헌신적인 사랑으로 호스피스 사역이 이 땅 위에 시작되어 지금은 각 교회들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고 있다. 후원에 의한 무료 운영이다.

삶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들에게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며 돌보는 이러한 활동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투자할 가치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산에는 생명의 편류관이 준비되었으리라 믿는다. 귀한 한 영혼을 눈물과 기도로 섬기는 사랑이 샘물처럼 이 땅 위에 솟아나 예수 사랑 전하는 사랑의 반석이 되기를 기도하며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샘물 호스피스'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삶의 가치관을 정리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밤도 수고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길 기도드린다.

❀ 교정전도회 희망대대를 다녀와서 ❀

"신경 꺼! 신경 꺼!"

금 호 순
(집사, 6교구)

개 인적으로 여름을 참 좋아한다. 해가 뜨겁게 뜨는 오후에 노닐기 좋아하는 여름은 또한 두려운 계절이기도 하다.

얼마 전 제하를 타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앞에 대화병처럼 되어 보이는 젊은 체구가 등에는 셀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앞에는 속에 끈이 달려서 중요한 부분(?)만을 가리게 되어 있는 손바닥만한 천조각을 걸치고 있는 것이었다. 보다 못해 "그런 옷은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나 입어야지, 이런 곳에서는 안되지 않을까?"라고 충고를 했다. 그

제네는 뻔히 쳐다보면서 "신경 꺼! 신경 꺼!"라며 거침없이 말을 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여 계단을 황급히 내려오는데 온 몸에 전땀이 베풀어 흐르면서 오히려 내가 더 무안하여 어디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7월 어느 무더운 날.

교정전도회에서는 장호원에 있는 희망대대 - 군복무 중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을 따로 모아 훈련시키는 군교도소 - 를 방문했다. 지난번 방문 때보다 수가 적었다. 젊은 장병들에게 주의 복음을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25년만에 드린 가족 예배

최영란
(전도사, 새가족부 부지도)

25년 전, 아버지께서 추석을 3일 남겨 놓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묵묵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형체가 온 우주에 가득차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죽음의 슬픔이 아니라 생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 가족들과 헤어짐이었는데,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후에도 천국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는 가족들에게 전심전력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변한 나의 모습에 가족들은 당황해 하였습니다. 나를 미친 아이라고 하면서 내 말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점점 더 뚜렷하게 생명을 보게 하였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사실 앞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장 먼저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심한 상처를 받으신 어머니는 모든 것에 무감각해지셨고 울기만 하셨는데, 나는 이런 어머니에게 하나님과 죽음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음을 들으신 어머니는 하나님이 귀한 분임을 아시고,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감탄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시니 나는 온 우주를 다 얻은 것같이 기뻐했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 온 식구들도 모두 나를 다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린 25년 후,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그야말로 25년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예배드리면서 둘러앉아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나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기다립니다

우리들 생활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시는 대로
글로 옮겨
성도들과 나누어 주세요.
언제든지 주간충현실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주간충현실은
선교관 3층에 있습니다.

주간충현 편집실

전한다는 측면에서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곳은 적을수록 마음이 가벼운 곳이다.

예배 시간에 군복을 입은 죄수들이 열기 왕성한 청년들답게 팔을 위로 들고 손뼉을 치며 복음성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저 불쌍한 영혼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나 빠른 시일내에 양어생각을 마치고 원대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새 삶을 살기를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고 군복님께서 희망대대의 실정을 이야기하면서 여름에는 수가 감소했다가, 겨울에는 그 수가 늘어난다고 했다. 이유인즉, 한창 사춘기의 나이에 부모와 애인, 친구 등을 떠나 극적이고 탄조로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던 차에 여름철 휴가를 받은 장병들이 여생들의 노출된 옷차림과 속이 훤히 보이는 차림새에 반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 죄값을 가을에 인도받아 주로 가을에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일차적인 잘못은

본인들에게 있지만,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도 그 책임의 반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을 방문한 후로 노출이 심한 옷이나 배꼽티 등을 보면 더욱 눈에 거슬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올 겨울에는 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순간의 죄를 뒤우치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낼까? 그 어느 때보다 심했던 열대야 여름을 원망하며...

이제 아예 이러한 노출 문화가 예배당까지 들어와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실정을 반영한 우스갯소리가 있다. 배꼽을 드러낸 옷을 입은 한 학생을 교회 어른이 타일렀더니 그 학생이 배꼽을 가리키며 "하나님은 중점을 보신다 기어..." 하면서 웃었다. 그냥 단순히 웃고 넘기기에는 아찔한 이야기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말씀의 교훈을 하나 소개하고 싶다. "소금이 만약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취재수첩

교정전도회

수원교도소에서 수요일예배 드려

교정전도회에서는 지난 9월 24일 오후 1시에 수원교도소에서 재소자들과 함께 수요일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전형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아멘 찬양대가 특송을 불러 300여명의 재소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다.

예배 후에는 이곳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전도를 실시해 나가는 것에 대해 수원교도소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오는 10월 21일에는 수원교도소 재소자 생일 축하 감사예배도 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재소자 중 10월에 생일을 맞는 사람이 100여명인데 이들의 생일을 축하하며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등3부 교사세미나

중등3부에서는 9월 21일 집회 후 교육관 503호에서 교육(양육)의 목표, 원리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교사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교육의 목표, 원리, 예수님과 사도들의 교육 방법 등 지난 14일 교사회의 시간에 과별로 토의한 내용을 각 과별로 한명씩 나와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교회 교육 일선에서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좀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



누면서 전국일꾼 양성을 위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새가족부 성경암송대회 가져

지난 9월 21일 새가족부에서는 성경암송대회를 열었다. 암송 범위는 새가족부 교제 1-26과까지의 주제 성구였는데 새가족 45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암송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 좋았고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은혜를 간증하였다.

영아부 찬송가부르기대회



영아부에서는 지난 9월 21일 주일 부모와 아이들이 찬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서로 친교를 나누는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열었다. 1, 2부 각각 과별로 8개팀이 참가하였는데 팀별로 선곡하여 중이로 만든 모자나 꽃술까지 동원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렸다.

한편 오늘은 새친구 초청잔치를 실시한다. 0-만2세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들을 영아부에 출석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들을 영아부에 출석도록 하여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에바다부 수화교실 개강



직원(비서)모집

1. 자격
 - 1) 세례를 받은 기혼여성
 - 2) 정규대학 졸업자
 - 3) 영어 해독이 가능한 자
 - 4) PC 사용이 가능한 자
2. 근무직

당회장 비서직 0명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주민등록등본
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기타 서류는 채용후 제출)
4. 제출처

충현교회 사무국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교환 402)

에바다부에서 주관하는 수화교실이 지난 9월 21일 오후 3시 교육관 109호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예배는 진홍용 장로의 사회와 박인기 전도사의 설교로 드려졌다.

수화교실은 오는 12월 21일까지 매 주일 오후 3시와 수요일 오후 1시에 시작해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 장년2부에서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교육관 314호에서 '크리스천의 가정 생활'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구명신 전도사이다.

▶ 에바다부에서는 오늘 수화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암송대회를 갖는다. 이를 위해 이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수화로 나타낸 그림을 배부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였다.

▶ 핸드벨콰이어에서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한다. 해당 연령 교회학교에 등록된 학생으로 핸드벨 연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환영이다. 신청은 10월 12일까지 본당 3층 핸드벨콰이어 연습실에서 받는다.

장례식장 설치 중단

충현동산 관리동에 설치하기로 했던 장례식장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설치를 중단기로 하였다.

1교구

남성도 교구 모임 갖기로 10월 7일 만나홀에서

1교구에서는 오는 10월 7일 오후 6시 30분부터 만나홀에서 남성도 교구 모임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남성도들

만의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어왔는데 이번 모임을 계기로 1교구에서는 분기별로 정기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 모임을 통해 남성도들이 좀더 말씀과 기도로 활기찬 신앙 생활을 해나가고 남성도간에 교제를 나누고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교구 및 교회 부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집트 단기선교 단원 모집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 충현'의 비전을 세워가는 일환으로 진행될 이번 단기선교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 일정: 97년 12월 15~23일
- 인원: 10명 내외
- 사역: 성경학교, 찬양집회, 초청전도집회, 선교세미나, 성탄축하음악예배, 선교지 탐방, 카이로 인근 성지 탐방
- 대상자: 성경공부, 찬양, 율동을 지도할 수 있는 선교 헌신자
- 신청: 10월 11일(토)까지
- 문의: 선교위원회(교환 357)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피택 안수집사·권사 당회고시 및 면접

10월 4일(토) 오후 2시 30분 교육관 307호에서는 피택 안수집사 및 권사들을 대상으로 당회고시 및 면접이 실시된다. 해당자들은 준비를 위하여, 온 성도들은 이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서도록 기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충현게시판

젊은이를 위한 5부예배, 찬양대와 안내위원을 모집합니다 지휘자, 반주자도 모집합니다 10월 26일까지!

5부 예배를 위해 섬길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대학, 청년부 연령에 있는 지체들 중 찬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만, 자원자격을 우리 교회 찬양대 규정에 따라 세례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바로 오늘부터 다음달 26일까지입니다. 지휘자와 반주자도 전공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찬양위원회 지도 박경한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 찬양대가 구성되면 곧바로 11월 2일 5부예배부터 섬기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내위원(남)으로 봉사하실 분들도 같은 기간 안에 꾸준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과 온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몇주 전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광고 및 친교의 시간을 예배순서에서 생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예배시간 지각생들'로 인해 무색해지고 있다. 예배시간에 지각하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나, 어찌된 일인지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라야 바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배시간에 지각을 하게 되면, 지각하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방해가 된다. 이는 귀에 못이 박힌 말이다. 습관이 무섭다. 이제 우리 충현의 성도들은 지각에 익숙해진 습관을 버리고, 예배시간 10분 전까지는 준비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에는 나중에 오는 사람을 배려하여 반드시 가운데 자리부터 앉도록 해야 하겠다. 교회에 갓나온 새가족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 '의자의 가운데를 비워두고 가장자리에 앉아서 자리 비켜 주기를 싫어하는 교인들에 대한 나쁜 인상'이 으뜸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야 하겠다.

사진 찍으세요

- 찍는 곳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는 교구

1997년 9월 28일 : 11교구
1997년 10월 5일 : 12교구
- 찍을 사람

원로, 은퇴, 시무장로 / 교역자 /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시무권사 / 남녀 서리집사